

# 배우 정우의 고생, 정우의 정성

넷플릭스 드라마 '모범시민'서 동하 역  
집 안팎에서 위기에 빠진 대학 강사로



넷플릭스 드라마 '모범가족'의 주인공 '동하'는 바람 끝에 서있다. 나이는 들어가는데 여전히 대학교 시간강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교수가 되기 위해 큰 돈을 들여 뒷선에 로비를 했지만 그것마저 잘 되지 않았다. 게다가 로비 자금도 모두 날렸다. 그 돈은 심장이 좋지 않은 어린 아들의 수술비였다. 각종 생활고에 지친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고, 사춘기 딸은 었나간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인생 최악의 시기에 그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외딴 길에서 차 한 대를 보게 되는데, 그 차엔 사람 2명이 죽어 있고 가능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현금 다발이 있는 게 아닌가. 그 돈에 손을 대고만 동하는 마약조직에 얽혀버린다. 그와 그의 가족은 이제

생명을 위협받게 된다.

동하의 위기가 더 절박하게 느껴지는 건 이 인물이 대체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서다. 그는 안으로 삭혀야 한다.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마약조직의 일이라는 건 조용히 완벽하게 수행해야만 할 일이다. 대신 동하의 눈빛은 자꾸만 흔들리고 가끔은 멍해져 있다. 목소리는 자주 떨린다. 감정을 대놓고 드러내는 것도 힘이 있을 때 가능한 법. 그래서 '모범가족'의 이같은 표현은 흥미롭게 다가온다. 이번 동하는 배우 정우(41)를 통해 생기를 얻었다. 최근 그를 만났다. "동하랑 저는 조금 달라요. 저는 표현하는 스타일이죠. 동하는 그 반대이고요.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연기하려고 했습니다. 기

술적인 게 아니라 동하의 감정을 이해하고 최대한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젠 분명히 예전에 본 적 없는 정우의 얼굴이다.

'모범가족'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유명한 드라마와 스토리·캐릭터 설정이 너무 유사하다는 비판이 있는 반면 한국 드라마가 거의 다룬 적 없는 소재가 참신하고, 고요하면서도 힘 있는 연출이 인상적이라는 호평도 있다. 다만 '모범가족'에 출연한 배우들의 연기력에 대해서는 모두 같은 반응이다. 주·조연을 가릴 것 없이 뛰어난 연기를 한다는 것이다. 정우는 "매장면 최선을 다해 정성 들여 연기했다"고 말했다. "카메라가 저를 아주 멀리서 잡고 있어서 제 얼굴이 하나도 안 보여도 정성스럽게 연기해야 해요. 현장에서 모두 저만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제가 대충 해버리면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향이 갑니다. 진지하게 정성스럽게 연기하면서도 유쾌하게 일하고 싶어요."

정우는 '모범가족'에서 정성스럽게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 조직원들에게 얻어 맞는 연기는 기본이고, 땅을 파서 시체를 묻고 그걸 다시 파헤치기도 하고, 얼굴에 봉지가 씌워진 채 땅에 묻히기도 했다. 한 여름에 폭 폭 찌는 목욕탕 안에서 벌거벗은 채 촬영해야 했고, 정체불명의 남자들에게 갑자기 납치돼 차에 강제로 태워지기도 했다. 합이 딱 떨어지는 무술 액션도 어려운 액션이지만, 이런 장면들 역시 난도 결코 낮지 않은 액션 연기이다. "극한의 감정 상태에서 해내야 하는 연기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부상을 당할 수 있다"는 게 정우의 설명이다. 그래서 이번 시즌 12월 '모범가족'이 공개된 후 주변 사람들에게 "고생했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고 했다. "이번 작품에서는 액션 연기가 몸이 힘든 게 아니라 심적으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동안 정우는 영화에 집중해왔다. 그러다가 최근 드라마로 활동 반경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해 '이 구역의 미친 X'에 나왔고, 올해는 일단 '모범가족'을 마쳤고, 다음 달 방송 예정인 '넌탈코치 제갈길'도 대기 중이다. 정우는 영화를 할 때보다 드라마에서 오히려 더 빛을 발하고 있다. 정우가 가장 주목받은 작품 역시 드라마 '응답하라1994'였다. 그는 과거엔 대부분 작품을 직접 선택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는 소속사 대표와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그들의 추천을 가장 우선해서 작품을 고른다고 했다. 그는 "최근이 배우로서 제 연기에 만족이 가장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우는 "제 연기 생활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고 저를 사랑해주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함께 작품을 선보이는 게 건강한 배우 생활인 것 같다"고 했다.

## 에스엠타운 라이브 2022, 대면공연 성료



광야(曠野)의 물리적 현현(顯現)은 SM엔터테인먼트 사옥이 있는 서울 성수동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가능하다.

20일 오후 6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 '에스엠타운 라이브 2022 : 에스엠씨유 익스프레스 @휴먼 시티\_수원'(SMTOWN LIVE 2022 : SMCU EXPRESS @HUMAN CITY\_SUWON)'이 증명하는 사실이다.

'슴뿔' 또는 '핑크 블러드'(PINKBLOOD)라 불리는 SM 팬 3만여명이 운집한 SM타운 라이브는 5년 만에 국내에서 열린 대면 공연이라 관심이 컸다. 특히 글로벌 공연 중계 플랫폼 '비욘드 라이브(Beyond LIVE)'를 통해서도 동시 생중계돼 세계 SM 팬들이 모두 함께 할 수 있었다.

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가 '메타버설 오리진 스토리'로 새롭게 명명한 아티스트들의 세계관을 확장한 SMCU(SM Culture Universe)를 대면해서 만나는 자리이기도 했다. SM 소속 각 팀을 상징하는 엠블럼이 박힌 깃발이 수원월드컵경기장 공중에서 위풍당당하게 펄럭였다.

에스엠타운 라이브는 SMCU의 공연 버전이다. 2008년부터 서울, 뉴욕, LA, 파리, 두바이, 칠레, 도쿄, 베이징, 상하이, 방콕, 싱가포르 등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성료했다. 한국 단일 브랜드 공연 첫 프랑스 파리 공연, 아시아 가수 첫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 공연, 해외 가수 첫 중국 베이징올림픽경기장 공연, 두바이 첫 대규모 K팝 공연 개최 등의 기록을 썼다.

SM 소속 가수들 대부분이 의기투합해 불려가 화려하다. 에스파가 글로벌 히트곡 '넥스트 레벨'을 부르며 이전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수준의 공연을 예고한 이날 무대는 기대에 충분히 부응했다.

1996년 데뷔해 국내 아이돌 그룹의 전형을 만든 H.O.T 가타를 비롯 일본을 기반으로 아시아 한류를 만든 원조인 보아와 동방신기 등 SM 개국공신부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태연, 효연, 샤이니 키, 민호, 엑소 수호·시우민·첸·디오·카이, 레드벨벳, NCT, 에스파, SM 소속 대표 여성 가수들이 뭉친 갓 더 비트(GOT the beat), 레이든, 긴조, 임예리 등 SM 소속 뮤지션들이 총출동했다.

특히 이날 공연에서는 데뷔 15주년을 기념해 5년 만의 완전체 활동으로 크게 주목 받은 소녀시대가 신곡 '포에버 원(Forever 1)' 무대를 공개했다. 소녀시대 멤버 중 수영, 서현, 티파니는 현재 SM 소속이 아니지만 가까이 함께 했다. 효연은 감각스런 무대에 눈물을 평평 쏟았고 다른 멤버들이 효연을 다 같이 안으며 달랐다.

발매 전인 앨범 수록곡을 선공개하는 자리도 있었다. 오는 30일 정규 2집으로 컴백하는 샤이니 키는 타이틀 곡 '가솔린(Gasoline)' 무

대를 미리 선보였다. 내달 7일 17년 만에 정규 앨범을 발매하는 강타도 타이틀 곡 '아이즈 온 유'(Eyes On You-야경) 무대를 처음 공개했다. 내달 말 첫 솔로 앨범 발매를 예고한 엑소 시우민 역시 수록곡 '세레니티(Serenity)'를 선보였다.

SM타운에서만 볼 수 있는 SM 소속 가수들의 협업 무대도 진수성찬이었다. 보아와 NCT 텐이 함께 하는 '온리 원(Only One)', NCT 슈타로와 성찬이 SM 루키즈 쇼헤이, 은석, 승환과 합동으로 선보인 '아웃트로 : 드림 루틴(Outro: Dream Routine)', SM 랩 유닛(NCT 태음, 제노, 헨드리, 양양, 에스파 지젤)의 '주(ZOO)' 무대 등이 눈길을 끌었다.

최근 K팝 신에서 대세로 떠오른 NCT 드림 무대는 10대 팬들의 큰 환호성을 끌어냈고, 동방신기는 무대는 기존 K팝 팬들의 추억을 떠올리게 했다. 특히 동방신기는 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를 "SMCU 익스프레스" 기장님"이라며 소개하기도 했다. 객석에서 응원봉을 들고 있던 이 프로듀서는 머리 위로 팔을 들어 크게 하트를 그리기도 했다.

가상 세계에서 무한의 영역인 SM의 '광야'가 공간의 개념으로 넘어와 성수동 신사옥으로 지정되거나 SMCU의 랜드마크가 된다. 여기에 SM 가수와 팬들이 모여 'SM 네이션'을 건국하게 된다. 'SMCU 익스프레스'라는 브랜드는 이 세계관을 담고 세계를 떠도는 기차다. 이수만 프로듀서가 기장이다.

그런 성격을 가진 만큼 가수와 팬들 모두 가족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했다. 외부 사정으로 공연이 몇십분 지연됐지만 팬들은 가까이 이해해줬고 가수들은 더 열성을 다해 성원에 보답했다. 얼마 전 부친상을 당한 슈퍼주니어 은혁은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다면서 "SM타운 모두가 가족이지 않나. 가족이 있어 든든하다"고 말했다.

"늘 함께 있어 소중한 걸 몰랐던 거죠 / 언제나 나와 함께 있어준 소중한 사람들을 / 가끔씩 내가 지쳐 혼자라 느낄 때 / 언제나 내게 힘이 돼 준 사람들을 잊고 살았죠 (...)" 두려움은 없어요 슬픔도 아젠 없어 / 우리 마음을 여기에 모아 기쁨의 축제를 열어요" 이날 공연은 H.O.T의 대표곡 중 하나인 SM 이벤트의 주제가 또는 SM의 사가(社歌)가 된 '빛'으로 4시간 가량의 이날 공연이 마무리됐다.

또 이날 SM 계열사 SM브랜드마케팅이 '뮤직 네이션 에스엠타운 메타-패스포트(MUSIC NATION SMTOWN META-PASSPORT)'를 출시해 눈길을 끌었다. SMCU를 담아 톤찬한 브랜드 광야의 두 번째 서비스로, 디지털 여권이자 멤버십 서비스다.

특히 메타패스포트는 지난 2012년 8월 '뮤직 네이션 SM타운(MUSIC NATION SMTOWN)' 탄생을 선포, 전 세계 30여 개국의 팬들과 시민권자들에게 선물로 배포했던 '뮤직 네이션 SM타운 패스포트'가 전환된 것이다. 이번엔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연결하고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되는 형태로 새롭게 선보였다.

이제 SM타운 라이브는 'SMCU 익스프레스'를 타고 세계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콘서트다. 오는 27~29일 일본 도쿄돔에서도 이어진다.

## 브래드 피트 "제 스텐트맨이 감독한 영화...액션 최고죠"

피트, 영화 '불릿 트레인' 홍보차 한국 와

"어떻게 보면 이전에는 제가 상사였다면, 이번엔 감독님이 제 상사가 된 거죠."

할리우드 스타 브래드 피트(Brad Pitt·59)가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2019) 이후 3년만에 새 영화를 들고 찾아왔다. 액션코미디 영화 '불릿 트레인'(Bullet Train)이다. 이번 작품은 일본 도쿄에서 교토로 향하는 신칸센에 7명의 킬러가 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피트는 7명의 킬러 중 한 명인 레이디 버그를 연기했다. 신칸센은 그 빠른 속도 덕에 실제로 '불릿 트레인'으로 불린다.

피트는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불릿 트레인'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그는 "많은 영화에 출연했지만, 이번 액션은 해 본 적이 없다"며 "여름에 어울리는 재미를 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트는 연출을 맡은 데이비드 리치 감독과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 이야기했다. 리치 감독은 '존 워'(2015) '데드폴2'(2018) '분노의 질주: 홉스&쇼'(2019)를 만든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스텐트맨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으로도 유명하다. 그리고 리치 감독은 오랜 세월 피트의 스텐트 대역이었다. '파이트 클럽' '트로이' '미스터&미세스 스미스' 등 피트의 대표작을 리치와 함께했다. 그런 두 사람이 이번엔 배우와 감독의 관계로 다시 만난

것이다.

피트는 "이런 배경을 가진 분이 감독이 되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고, 흔치 않은 일"이라며 "리치 감독은 오랜 시간 좋은 친구이자 동료였다"고 했다. "스텐트 대역 배우는 주연 배우가 연기를 잘하게 도와주는 역할이죠. 그런데 리치가 이전 감독이 됐잖아요. 감독은 영화의 총괄책임자죠. 그 전에는 제가 상사였다면, 이번엔 리치가 제 상사가 된 겁니다."

'불릿 트레인'은 대부분의 에피소드가 열차 안에 일어난다. 기차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영화가 대개 그렇듯 '불릿 트레인' 역시 각기 다른 분위기의 칸과 칸을 오가면서 벌어지는 액션이 인상적이다. 피트 역시 그런 부분을 이 영화의 가장 인상적인 액션으로 꼽았다. 그는 "매점 물건이 저장된 칸에서 벌어지는 액션이라든지 정숙해야 하는 칸에서 벌어지는 액션 역시 재밌을 것"이라고 했다. 피트는 '불릿 트레인'의 액션 콘셉트에 대해서는 "리치 감독과 나는 성통과 찰리 채플린을 존경하고 동경해왔다"며 "그들에게서 영감을 받았고, 그들을 향한 우리의 존경심을 보여주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번 작품에서 '탠저린'을 연기한 애런 테일러존슨(Aaron Taylor-



Johnson·32)도 참석했다. 탠저린은 거액이 든 서류 가방을 중심에 두고 레이디 버그와 대립하게 된다. 존슨은 "피트는 전설이고 아이콘이고 멘토였다"며 "이런 좋은 영화를 함께하게 돼 영광이었다"고 했다. '불릿 트레인'은 오는 24일 개봉한다.

뉴스스

## 블랙핑크, 스포티파이 일간 톱송 1위

그룹 '블랙핑크'가 K팝 여성 아티스트 최초로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정상 자리를 차지했다.

20일(미국 현지시간) 스포티파이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정규 2집 선공개곡 '핑크 베놈(Pink Venom)'이 데일리 톱 송 글로벌 차트 1위에 올랐다. '핑크 베놈'은 발매 첫날인 19일 스포티파이에서 스트리밍 횟수 793만 7036회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나온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노래 중 가장 높은 스트리밍 수치다.

또 '핑크 베놈'은 스포티파이 국가·지역별 톱 200에서 71개국 차트 진입에 성공했고, 그중 미국에서 6위에 랭크됐다. 스포티파이는 미국 빌보드 차트에도 영향을 끼치는 파급력 높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인 만큼 이번 성과가 눈길을 모았다.

블랙핑크는 2년 전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에서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으로 2위에 오른 바 있다. 또 '리브식 걸즈(Lovesick Girls)'는 3위, '아이스 크림(Ice Cream)'과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가 4위를 기록한 바 있다. '핑크 베놈'은 블랙핑크 특유의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힙합 장르의 곡이다. 강렬한 비트와 어우러진 우리나라 전통 악기 사운드로 시작해 네 멤버의 날렵한 랩과 유혹적인 보컬이 돋보인다.

이 노래는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73개국 아티스트 1위를 휩쓸며 월드와이드 송 차트 정상 자리를 차지했다. 또 중국 최대 음원 사이트인 QQ뮤직의 다운로드·인기신곡·뮤직비디오·유행지수 등 각종 차트를 휩쓸었다.

뮤직비디오도 공개된지 29시간 35분 만에 조회수 1억회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1억뷰에 도달한 K팝 걸그룹 뮤직비디오 중 가장 빠른 속도다.